


기독교세계관을 토대로 한 남부전원교회 고등부 커리큘럼

행복한 부장집사,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들

교회학교의 주일 공과시간은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 아이들은 공과시간이 따분하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교사들은 공과시간에 걸들기만 하는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기가 고역이다.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공과시간은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한 수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공과시간을 참으로 교육답게 채워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부전원교회 고등부는 주일의 고등부 공과 체제를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교회학교이다. 교사들이 1년 간 함께 책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안을 만들고 시범 수업을 하면서 고등부 3년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주일 고등부 공과시간에 기독교세계관에 바탕을 둔 수업을 실현하고 있다. 고등부 출석 인원 30명 남짓, 교사 12명 규모의 교회학교 하나의 부서가 어떻게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혁신적인 교회학교 주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1년간의 커리큘럼 준비, 그리고 실행 1년 11개월, 교회학교 교사의 신앙과 삶에 교회학교 커리큘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남부전원교회 길강묵 고등부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나보았다.  인터뷰 윤해영, 사진 박경민, 김종학





고등부 교회교육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고 고민하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길강дук 15년 교사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세상 교육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꿈틀거리며 변하고 있는데 교회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교사도 크게 변하지 않고요. 교사의 사명을 단지 봉사의 한 부분 정도로 여기거나 혹은 자기 열정의 발산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교사의 사명과 직분은 분명 그 이상일 것입니다. 2009년에 고등부 부장으로 책임을 맡으면서 고등부 담당 목사님에게 “교육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에 맞는, 현 시대에 맞는 교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건의했고,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있고, 기독교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교회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에 맞는 교육 콘텐츠화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개편회의에는 부장집사, 고등부 담당 목사, 교사 두 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하셨는데,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길강дук 기독교세계관 중심의 교회학교 교육, 청소년기에 반드시 정립해야 할 필수적인 기독교교육 소재의 콘텐츠화를 통한 교회학교 교육의 강화, 이것이 큰 축입니다. 교육 형태도 크게 전환했는데요, 기존의 일방적,

주입식 공과 교육 형태에서 교사와 함께 하는 연구, 토의, 글쓰기, 발표 위주로 전환하고, 전문가 초청특강 등을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의 예산 구조를 개편했는데, 보통 연중 예산이 여름과 겨울 수련회에 거의 80%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형적인 교육 예산을 연중 프로그램에 알맞게 고르게 분산하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길강дук 전체 커리큘럼은 고등부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5개 영역의 대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1영역은 복음과 확신, 제자의 도 등이 대주제인데요, 이 과정은 필수과정으로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 되는 과정입니다. 제2영역은 기독교세계관, 불타는 세계비전이고, 제3영역은 신앙과 지성, 대인관계, 제4영역은 현대사회 이슈와 문화, 인물탐구, 제5영역은 실용영역으로 비전과 직업선택입니다. 각 대주제의 하부에는 소주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2영역인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영역 안에는 크리스천의 삶의 동기, 기독교와 과학, 기독교적 정치관 등 이러한 소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부 교육의 형태도 크게 전환했는데 기존의 일방적, 주입식 공과 교육 형태에서 교사와 함께 하는 연구, 토의, 글쓰기, 발표 위주로 전환하고, 전문가 초청특강 등을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영역별 커리큘럼의 실제 운영이 궁금합니다.

길강묵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에 대해 3개월(대략 10주)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3개월 기간 동안 대개의 경우 소주제 8~10개를 다루게 되고, 중간과 마지막에 소감문을 쓰고, 서로 발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수업 방식은 토론식입니다. 글쓰기를 주요 활동으로 넣었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글 쓰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글을 보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 학습, 글쓰기, 발표, 이 세 가지가 특징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 구성은 학년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고 1, 2, 3이 혼합되어 편성됩니다.

주일에 예배와 영역별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길강묵 사실 예배 시간을 주일 오전 9시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다. 도입 초기에 모두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안정화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오전 9시에 약 15분간 반별로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이 조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15분부터 10시 20분까지 영역별 선택과목 수업을 하고, 약 10분간 교제 시간을 갖고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학교 중에서 공과수업을 65분이나 진행하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 특별활동을 진행하는데 이 특별활동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주일의 커리큘럼을 바꾸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길강묵 힘든 면이 없지 않았습다. 교사들과 영역별로 책을 5~6권씩 읽고,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을 문서

로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2009년 한 해 동안 했는데, 2009년은 거의 매일을 새벽 2시나 3시까지 문서 작업했어요. 초기에는 선생님들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선생님을 세워나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고 중요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보람 있지 않으신가요?

길강묵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죠. 해야 할 일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야 할 일과 소명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동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커리큘럼 구성과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할텐데, 교사들의 교육과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길강묵 지금은 매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교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한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영역별 교사가 작성한 교안을 발표하고 피드백 시간을 가지지요. 고등부 교사직이 3D업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는데, 고등부 선생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교회이든 모든 선생님들이 헌신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저희 고등부 교사들이 주일에 가장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편 초기에는 책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다보면 대여섯 시간 훌쩍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교사모임을 3시간은 넘지 않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교육에서 어떠한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지요.

길강묵 사명자에 맞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훈련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임목사의 비전이 중

남부전원교회 고등부 남부아카데미(NBHS) 교육과정

과정	영역	대주제	소주제	
필수 과정	제1영역	복음과 확신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해결, 인간의 책임, 풍성한 삶,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각 영역 필수 활동 1. 소감문쓰기 2회 2. 발표 및 전체 토론 1회
		제자의 도	그리스도 주재권, 성경의 권위, 기도의 위력,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 교제와 섬김, 이렇게 전도하라, 효율적 시간사용, 건강의 청지기	
선택 과정	제2영역	기독교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문화, 기독교와 과학, 창조론과 교과서 안의 진화론, 성경과 미디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기독교적 정치관	
		불타는 세계비전	타문화 선교 1,2, 동양문화권 1,2, 서양문화권 1,2, 제3세계 문화권 1,2	
	제3영역	신앙과 지성	청소년시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개인의 중요성, 학문과 신앙, 외국어는 필요한가, 자기개발, 크리스천의 독서생활, 말씀의 영향력, 토론과 설득	
		대인관계	가족, 화성남자 금성여자, 이성친구와 데이트, 순결한 성, 누구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진정한 우정, 해가 되는 말-은혜로운 말, 권위와 복종	
	제4영역	현대사회 이슈와 문화	현대사회문화와 기독교, 크리스천의 정직함과 도덕성, 지구환경과 기독교, 다문화사회 이민자의 증가와 크리스천의 사명, 청소년문화 깨우기, 학교문화, 대중문화, 사이버문화	
		인물탐구	성령과 기질, 구약인물1, 구약인물2, 신약인물2, 현대크리스천인물1,2,3,4,5	
	제5영역	비전과 직업선택	그리스도인의 직업, '나'발견하기, 진로와 직업가치 탐구, 직업선택도 검사1,2, 전문직종 1,2,3/ 초창강좌 진행	

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들인데, 교육은 결국 선생님이 하는 것이잖아요. 교사들끼리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공유 과정은 사역의 기술이기도 하죠.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일이라고 봅니다. 교사들 자신이 훈련받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자신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현재 고등부 교사교육은 연구하고 훈련받고 목표와 소

명을 상기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사들 간의 관계도 중요해요. 사역보다는 관계죠. 그러나 목표를 공유하고, 훈련을 해나가면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역을 지향하면서 함께 하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장집사님이 교회학교 부서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데에 앞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부장집사님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창안하는 교회는 없지 않나 싶은데, 교사들과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길강묵 부장집사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전체를 봐야 하고 목표를 향한 강한 추진력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이되 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사들 개개인의 상황과 정도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되죠. 목표를 향해 강하게 밀고 나가지만, 지치고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부서에는 교사 안식 학기제가 있습니다. 안식 학기제는 3개월 동안 영역 담당 수업을 하지 않고, 교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1회 발표를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도서 구입비는 부서에서 일부 지원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고, 충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교사 자신의 동기부여가 지속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장집사님이요 교사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작업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길강묵 저는 지금 40대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생애에 길이 남는 신앙의 발자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

사를 하든 선교의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그 대상이 아이들이기에 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교사 자신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한 분씩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화(불타는 세계비전) 저는 모태신앙인데 신앙의 활력이랄까요, 충전할 시간이 없던 것 같은데 다시 공부하게 되고,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 또한 많이 성장했어요. 교육 전반에 관한 고민과 관심의 폭이 넓어졌고, 교육에 대한 관점을 세우게 되었어요.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매 수업을 위해 교사가 직접 교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교안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힘들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작업인 거죠. 제 자신이 공부하려고 하고, 경험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서 좋아요.

김미리(비전과 직업선택) 기독교세계관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 있었어요. 여태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들을 기독교세계관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서 신앙이 다듬어졌죠. 제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 방식이 아이들에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선생님들의 염려와 고민이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거죠.

손의진(대인관계) 교회학교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는 한데 제 자신에게 많이 도전됐어요. 그 전에도 교사가 정해진 교재로 준비하고 공부를 해왔지만,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바뀐 다음에는 전체 교사들이 스스로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고 수정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안을 작성하게 됐죠. 제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진희(제자의 도) 저희 커리큘럼은 저 자신의 성장에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이들과는 성경공부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이 커리큘럼이 좋고 유익하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신뢰가 커요. 교회에서 흔히 교사에

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어느 정도 되었고 전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선생님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정민선(인물 탐구)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일단은 좋았어요.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는데 내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되었어요.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두려다가 목사님의 격려로 계속 하게 됐어요. 나 자신의 발전, 도전이 되는 것이 교사를 계속 하는 원동력이예요.

정영현(인턴교사) 제가 대학생이어서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죠.

남혜리(인턴교사) 아직 과정 많지 않은, 인턴 교사예요. 처음에는 행정적인 것들을 매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회의록 기록하고 선생님들에게 회람하도록 하는 것이 매주 해야 하는 일인데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배워나가면서 하나씩 아이들에게 애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교사 맡아서 수업하게 될텐데 친구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교사모임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교안을 만들면서 교사 자신들 스스로가 더 많이 배운다고, 더 많이 성장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남부전원교회 교등부 교사들은 그 자리에 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행복한 부장집사님, 함께 연구하는 선생님들, 기독교세계관을 삶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아우르는 그 움직임 속에서 아이들도 함께 자라나고 행복해하리라 그려본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자리에서 ‘봉사’가 아닌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이 땅에 움튼 또 하나의 희망을 본다.



윤혜영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학부에서는 국어국문학, 석사과정에서는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했다. 관심분야는 성경읽기교육, 글쓰기교육, 극수업, 교재 개발, 크리스천 교사교육 등이다.